



단테 태너

40지구 주의원 후보 (민주당)

버지니아는 메디케이드 확대적용을 위해 연방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 모든 버지니아 가족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주/지역 경찰이 287g조약에 사인함으로써 이민국단속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오. (상세의견 없음)

운전시험을 통과한 적절한 나이의 모든 개인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협조적인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을 경찰의 상시적인 이민신분 확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버지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불로 인상해야 할까요?

예. 저는 이에 관해 소규모 비즈니스들의 의견도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월마트나 맥도날드, 타겟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임금으로 시간당 15불을 지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지니아는 “노조결성 제한및 금지” 법을 폐지해야 할까요?

예. “노조결성 제한” 법은 기업들이 건강보험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조장할 뿐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불신을 낳습니다.

버지니아는 소득세 과세 적용대상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오. (상세의견 없음)





단테 태너

40지구 주의원 후보 (민주당)

**버지니아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합니까?**

예.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이 버지니아 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대학
진학시 주내 학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버지니아 주민은 주 세금을 내고 있으며, 따라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경제부담 없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 차원에서 공립대학에 대한 재원을 증가하여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거주민들의 입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버지니아 대학에 다니는 거주민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이 주 정부문서를 좀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단계적 해결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 주 정부 부서들이 충분한 재정을 받아 이중언어 구사자 및 커뮤니티 liaison을 고용하여 커뮤니티에게 제대로 번역된 문서를 제공하거나, 대표자를 통해 커뮤니티와 함께 노력해서 번역 과정을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아무 이유없이도 부재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선거날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도 해야 하고, 각자 생활이 있어서 바쁜 일과중에 몇 시간을 소비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유불문 부재자 선거제를 찬성합니다.

*사진은 후보 페이스북에서 전제

